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에는 노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파월 의장, “금리 인하할 때 왔다”
- Bloomberg: 연준 관리들, 곧 금리 인하 그리고 점진적 속도 주장
- Bloomberg: 이코노미스트들, “노동시장 둔화 속도 빨라 공격적 금리 인하 필요”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파월 금리 전환 발언 직후 S&P 500, 1% 상승에 국채 금리 하락

#### [유가]

- CNBC: 미국 원유 배럴당 74불로 상승했지만, 주간 손실은 여전

#### [미중 무역]

- CNBC: 중국, 멕시코 주요 차량 공급자... 미국에 미칠 영향은?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BC: Cruise(GM 소유), 우버와 협력해 무인 차량 서비스 제공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Powell Says ‘Time Has Come’ for Fed to Cut Interest Rates**

##### **파월 의장, “금리 인하할 때 왔다”**

- 파월 의장은 오늘 금요일 책سن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“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릴 때가 왔다”고 말했다. 이로써 그는 연준 관리들이 다음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기대감을 확인시키면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막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.
- 그는 “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왔다”며 “움직임의 방향은 분명하며,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는 향후 경제 지표와 전망,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 있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이어 인플레이 목표를 언급하며 “인플레이션이 2%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낮아지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Fed Officials Argue for Gradual Pace of Cuts Starting Soon**  
**연준 관리들, 곧 금리 인하 그리고 전진적 속도 주장**

- 두 명의 연준 관리들은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하 속도는 점진적이고 체계적(methodical)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.
- 보스턴 연준 총재인 Susan Collins와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인 Patrick Harker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.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금리 인하의 빈도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.
- 특히 Collins총재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관리하면서 계속 양호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점을 강조했다.

## 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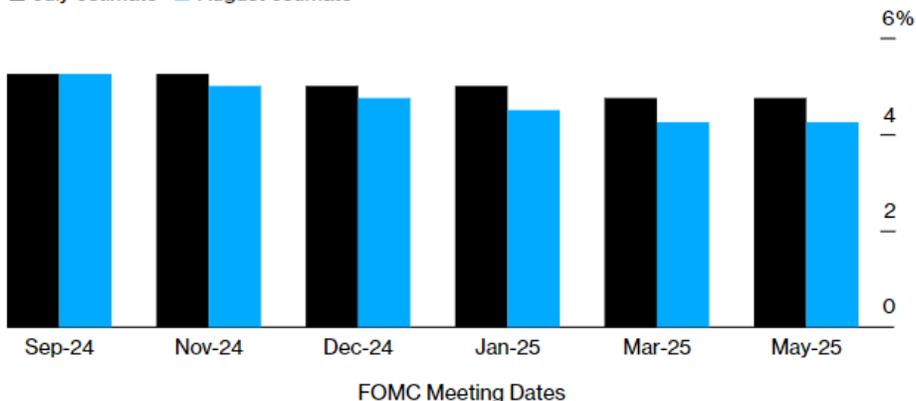
**Bloomberg: Economists See Faster Labor Cooling, Steeper Fed Cuts in Survey**  
**이코노미스트들, “노동시장 둔화 속도 빨라 공격적 금리 인하 필요”**

-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의 대상으로 질문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당초 생각과는 달리 노동시장이 더 둔화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보다 빠르고 급격한 금리 인하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올해 말까지 실업률은 4.4%까지 상승하고 내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.
- 그리고 이번 8월 이코노미스트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용 추세가 7월 보다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이 0.75% 포인트 돼야 한다는 것. 이는 7월 설문 결과 0.5% 포인트 하락 폭 보다는 큰 수준이다.

### Economists See Fed Ramping Up Interest-Rate Cuts

Fed funds rate upper bound expected to decline faster in August survey

■ July estimate ■ August estimate



Source: Bloomberg

Note: Survey of 67 economists conducted Aug. 16-21

Bloomberg 기사

### [미국 금융]

#### Bloomberg: Stocks Climb as 'Powell Pivot' Sinks Bond Yields: Markets Wrap

파월 금리 전환 발언 직후 S&P 500, 1% 상승에 국채 금리 하락

- 파월 의장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인한 가운데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증시 모든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. 특히 2년물 국채 금리는 4% 이하로 하락 중이며 달러는 다른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### [유가]

#### CNBC: U.S. crude oil rises above \$74 per barrel but is on pace for weekly loss

미국 원유 배럴당 74불로 상승했지만, 주간 손실은 여전

- 원유 선물가가 금요일 1% 상승했지만, 중국 수요 약화로 인해 주간 하락세는 여전하다. 미국산 원유는 한 주 동안 2.9% 하락했고,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는 1.4% 하락했다.

- RBC Capital Market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 Helima Croft는 “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유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. 시장은 수요 우려에 집중하고 있으며, 중국의 수요 우려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.”라고 말했다.

CNBC 기사

### [미중 무역]

#### **CNBC: How China became the leading car supplier to Mexico and what it means for the U.S.**

#### **중국, 멕시코 주요 차량 공급자... 미국에 미칠 영향은?**

- 관세 때문에 중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막히자 멕시코가 새로운 시장으로 떠올랐다.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46억불을 수출한 주요 차량 공급자였다.
- 테슬라의 라이벌 BYD는 돌핀 미니를 가장 저렴한 테슬라 차량의 절반가인 약 2만1300불에 판매하는 등, 중국 차량 제조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다.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는 멕시코에 공장 부지를 물색하며, 북미에서 더 큰 발판을 찾고 있다. 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했다.
-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멕시코를 무역 제한을 피하는 백도어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. 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(USMCA)에 따라 외국 자동차 회사가 멕시코에서 자재를 현지 조달하고 제조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,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다.
- Dunne Insights의 CEO인 Michael Duune은 “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 진출하면,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협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CNBC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# **CNBC: GM-owned Cruise will partner with Uber to offer driverless rides** **Cruise(GM 소유), 우버와 협력해 무인 차량 서비스 제공**

- GM 소유 크루즈와 우버가 파트너십을 맺고, 내년부터 무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 크루즈 CEO Marc Whitten 과 우버 CEO Dara Khosrowshahi는 이번 파트너십을 환영하며,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다고 밝혔다.
- 크루즈 대변인은 자체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와 앱을 출시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. 크루즈는 현재 피닉스, 휴스턴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.

- 우버는 구글 소유 Waymo와도 협력해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를 이용한 무인 차량 서비스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크루즈 경쟁사인 Waymo는 샌프란시스코, 피닉스 등의 도시에서 매주 10만 건의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계속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확장할 계획이다.

CNBC 기사

**美 엔비디아 주가 3.7% 하락 마감...반도체 지수 3.4%↓  
애플·MS·알파벳 등도 일제히 하락...테슬라 5.6% 내려**

인공지능(AI)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22일(현지시간) 4%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.

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3.7% 내린 123.74달러(16만6천306원)에 거래를 마쳤다. 이날 주가는 전날보다 소폭 오른 130.03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으나, 이후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이 확대됐다.

시가총액도 3조430억 달러로 줄어들며 이날 주가가 2.03% 내린 마이크로소프트(MS·3조880억 달러)에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내줬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